

# 심리적 영적 요인이 재가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김경희<sup>1</sup> · 권혜진<sup>1</sup> · 최미혜<sup>1</sup> · 박윤자<sup>2</sup> · 김수강<sup>3</sup>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sup>1</sup>,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sup>2</sup>,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sup>3</sup>

## Psychological and Spiritual Factors Associated with Death Anxiety of Elderly People Living at Home

Kim, Kyung-Hee<sup>1</sup> · Kwon, Hye-Jin<sup>1</sup> · Choi, Mi-Hye<sup>1</sup> · Park, Yoon-Ja<sup>2</sup> · Kim, Su-Kang<sup>3</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Jangan University,

<sup>3</sup>Researcher,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hung-Ang University

**Purpose:** The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psychological spiritual factors related to death anxiety of elderly living at home.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was conducted. The participants were 494 living at home elderly people conveniently selected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death anxiety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negatively with self-integrity, readiness of death, belief in life after death, and spiritual well-being. The factors influencing death anxiety were self-integrity, readiness of death, depression, and belief in life after death. Those four variables explained 21.6% of death anxiety. **Conclusion:** It is expected to serve as a useful tool for nurses who serve elderly people in the clinical field and local community to help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death, and it is expected to lay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geared toward alleviating death anxiety.

**Key Words :** Death, Anxiety, Aged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고,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에 두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Statistics Korea, 2005)에 의하면 2018년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3%가 노인인구로 고령사회로 들어가게 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8%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을 예상하였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파생되는 노인 개개인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대책이 강구되

고 있다. 특히 매년 노인의 고립과 우울 그리고 자살과 죽음에 대한 방송들이 보도 되고 노인자살이 다뤄져 제작되는 등 노인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죽음과 관련된 주제들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노년기와 가장 관계가 깊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데, 죽음에 대한 불안은 노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Hong, 2009). Erikson (1997)은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자아통합의 상태 즉 죽음의 불안까지 없는 심리적 안정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Jeon (2000)은 노인이 죽음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므로 환경과 상호

**주요어 :** 죽음, 불안, 노인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won, Hye-Jin,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2-820-5678, Fax: 82-2-824-7961, E-mail: kwonhj@cau.ac.kr

투고일 2009년 11월 10일 / 수정일 1차: 2010년 2월 28일, 2차: 2010년 3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20일

작용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만족스러운 노년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죽음불안을 조절하는 것은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된다. 특히 생의 전환 주기 중 노년기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요구가 강해지는 시기로, 정신적 사회적 고립감(Oh, 2008)과 낮은 자아통합감은 죽음불안을 증가시켰고(Hong, 2009), 영적 안녕은 자아통합감을 매개로 죽음불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Choi, 2009), 죽음에 대한 심리적 준비가 낮을 경우 죽음불안이 증가되었다(Park, 2009). 이와 같이 심리적 또는 영적 요인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심리적·영적 요인과 죽음불안을 다룬 요인관련 이론 수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죽음불안과 자아통합감(Hong, 2009; Kwon, 2008), 우울(Kwon, 2008; Moon, 2009; Oh & Choi, 2003), 죽음준비도(Lee, 2005; Moon, 2009; Park, 2009; Ryu, 2004), 종교참여(Choi, 2005; Jang, 2003; Shin, 2002), 신앙생활(Kim, 2003), 내세관(Ryu, 2004), 영적 안녕(Choi, 2009; Kim, 2007; Park, 2007) 등의 한두 가지 관련요인만을 단편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이며 심리적·영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 또한 노년기 죽음불안 영향요인을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한 Jeon (2000)의 연구에서도 심리요인으로 자아통합감과 삶의 만족도라는 중복된 개념을 측정하였으며, 영적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의 죽음 불만에 관련된 심리적·영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조직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문헌고찰을 통해 심리적·영적 요인 중 자아통합감, 우울, 죽음준비도, 내세관, 영적 안녕과 같은 보편적으로 일관된 견해를 보이는 변수들을 선택하여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 및 관련 종사자들이 노인이 가지는 죽음불안을 이해하고 심리적·영적 측면에서 중재방안을 마련하여 노인들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평화로운 죽음을 위해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가 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영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죽음불안정도와 관련변인 지각정도를 파악

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 정도와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죽음불안과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영적 요인을 규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요인관련 이론수준의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복지관 및 노인대학을 방문하는 65세 이상의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듣고 말하기에 문제가 없고 일상 활동이 가능하며 설문지의 내용과 연구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를 편의추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중 듣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읽고 쓰기가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연구보조원이 도움을 주었으며 자료수집 시간은 40~5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는 총 540부가 수집되었으며 설문지 내용이 미비한 46부를 제외한 494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연구윤리

본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면을 고려하기 위해 먼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각각의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이에 동의한 경우 설문지의 앞면에 마련된 지면에 서명하도록 하여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 4.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죽음불안

Collett와 Lester (1969)가 개발한 죽음불안 도구(Fear of Death Scale, FOD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죽음의 불안을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9문항, 타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10문항,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11문항, 타인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6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im (2003)에 의해 한국노인의 특성에 맞추어 수정 보완된 총 16문항으로 각 영역별 4문항씩 구성하였으며,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Likert-type scale의 5점 등간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정문항 4개(5, 6, 7, 10)는 역으로 계산하며, 점수범위는 16점에서 6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강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Kim (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 2) 자아통합감

본 연구에서는 Hong (2000)이 개발한 자아통합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2개의 하위영역인 과거와 현재에 대한 수용 11문항과 삶에 대한 태도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정문항 7개(1, 3, 5, 9, 12, 13, 15)는 역으로 계산하며 점수는 4점 등간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로 측정된다. 점수범위는 16점에서 6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 3) 죽음준비도

본 연구에서는 Ryu (2004)가 개발한 죽음준비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죽음에 대한 수용과 같은 심리적 준비에 관한 3문항, 물리적 준비에 관한 4문항, 사후 준비에 관한 2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4점 등간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범위는 9점에서 36점의 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9$ 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 4) 우울

본 연구에서는 Kee (1996)의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GDS-K)를 보다 단순화하여 개발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GDSSF-K)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이 중 5문항(2, 7, 8, 11, 12)은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 우울한 것으로 채점되고, 나머지 10문항(1, 3, 4, 5, 6, 9, 10, 13, 14, 15)은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 우울한 것으로 채점된다. 총점은 30점 만점이며, 응답은 '예', '아니오'의 양분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 5) 내세관

본 연구에서는 Ryu (2004)가 개발한 내세관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내세의 유무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는 4점 등간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범위는 4점에서 16점의 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세가 있음을 강하게 확신함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였다.

### 6) 영적 안녕

Paloutzian과 Ellison (1983)이 개발한 영적 안녕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종교적 영적 안녕 영역 10문항과 실존적 영적 안녕 영역 10문항의 2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적인 문항 12개(2, 4, 6, 7, 8, 9, 10, 12, 14, 15, 17, 20), 부정적인 문항 8개(1, 3, 5, 11, 13, 16, 18, 19)로 이루어졌다. 점수는 4점 등간척도로 '언제나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고 부정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점수범위는 20점에서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하위영역에서 종교적 안녕은 .93, 실존적 안녕은 .82였다.

##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정도는 빈도분석 및 평균과 표준편차의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죽음불안과 연구변수의 차이검정은 two sample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검정하였고 사후 검정은 Duncan's method를 이용하였다. 죽음불안과

연구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고,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심리적·영적요인을 규명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72.8세였으며, 성별은 여성이 69.6%로 남성에 비해 많았다. 교육정도는 초등졸이나 서당이 40.9%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상이 전체의 20.9%, 중졸 이하가 전체의 79.1%로 나타났으며, 이중 무학이 18.4%를 차지하였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52.2%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사별도

42.7%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30.6%로 가장 많았고, 불교, 무교, 천주교,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정도에서는 '영향을 받았다'가 전체의 49.1%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32.6%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동거가족은 '부부만' 사는 경우가 30.2%, '미혼자녀'나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46.0%로 나타났고, '혼자' 사는 경우도 19.4%를 차지하였다. 경제수준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가 44.5%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와 '만족하지 못한다'의 비율이 각각 27.6%, 28.0%로 비슷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도 '그저 그렇다'가 31.8%로 가장 많았고, '건강하다'와 '건강하지 못하다'의 비율이 각각 32.6%, 35.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회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다'가 36.2%, '하고 있지 않다'가 34.0%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94)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or M±SD | Range  |
|----------------------------|--------------------------|---------------|--------|
| Age (year)                 |                          | 72.8±6.4      | 65~100 |
| Gender                     | Male                     | 150 (30.4)    |        |
|                            | Female                   | 344 (69.6)    |        |
| Education level            | None                     | 91 (18.4)     |        |
|                            | Elementary school        | 202 (40.9)    |        |
|                            | Middle school            | 98 (19.8)     |        |
|                            | High school              | 75 (15.2)     |        |
|                            | ≥ College                | 28 (5.7)      |        |
| Marital status             | Unmarried                | 11 (2.2)      |        |
|                            | Married                  | 258 (52.2)    |        |
|                            | Bereavement              | 211 (42.7)    |        |
|                            | Others                   | 14 (2.8)      |        |
| Religion                   | Christian                | 151 (30.6)    |        |
|                            | Catholicism              | 60 (12.1)     |        |
|                            | Buddhism                 | 139 (28.1)    |        |
|                            | Others                   | 9 (1.8)       |        |
|                            | None                     | 135 (27.3)    |        |
| Influence of religious     | Poor                     | 161 (32.6)    |        |
|                            | Moderate                 | 90 (18.2)     |        |
|                            | Good                     | 243 (49.1)    |        |
| Live together              | Only couple              | 149 (30.2)    |        |
|                            | With married offspring   | 165 (33.4)    |        |
|                            | With unmarried offspring | 62 (12.6)     |        |
|                            | Alone                    | 96 (19.4)     |        |
|                            | Others                   | 22 (4.5)      |        |
| Perceived financial status | Unsatisfied              | 138 (28.0)    |        |
|                            | Moderate                 | 220 (44.5)    |        |
|                            | Satisfied                | 136 (27.6)    |        |
| Perceived health condition | Bad                      | 176 (35.6)    |        |
|                            | Moderate                 | 157 (31.8)    |        |
|                            | Good                     | 161 (32.6)    |        |
| Social activity            | Poor                     | 168 (34.0)    |        |
|                            | Moderate                 | 147 (29.8)    |        |
|                            | Good                     | 179 (36.2)    |        |

## 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대상자의 죽음불안은  $52.1 \pm 7.1$ 점으로 죽음불안의 하위영역 중 타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 영역과 타인의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불안 영역이 2.7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신의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불안 영역 2.6점,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 영역 2.4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2).

심리적 요인 중 자아통합감은 평균  $41.3 \pm 6.8$ 점이며, 자아통합감의 하위영역에서 삶의 태도 영역이 2.8점, 과거와 현재의 수용 영역이 2.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죽음준비도는 평균  $25.4 \pm 4.4$ 점으로 죽음준비도의 하위영역 중 사후준비 영역이 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 준비 영역과 물리적 준비 영역은 2.8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우울정도는  $21.5 \pm 3.7$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영적 요인 중 내세관은 평균  $11.6 \pm 3.2$ 점으로 나타났고, 영적 안녕은 평균  $54.0 \pm 11.3$ 점으로 영적 안녕의 하위영역에서 실존적 안녕이 28.0점으로 종교적 안녕 26.0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Table 2).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 차이검정

죽음불안은 성별, 교육정도, 혼인상태, 종교, 경제수준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52.5점으로 남성에 비해 죽음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에서는 무학 52.7점 초등 졸이 52.3점 중졸 52.7점으로 48.6점인 전문대졸 이상보다 죽음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서는 미혼이 53.6점으로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기타 혼인상태에 비해 죽음불안 정도가 높았고,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50.3점으로 천주교 불교 무교에 비해 죽음불안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0.6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죽음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각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죽음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4. 연구변수와 죽음불안의 상관관계

죽음불안은 심리적 요인에서 자아통합감, 죽음준비도와 부적 상관이 있으며, 우울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영적 요인에서 내세관과 영적 안녕에서 모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 5.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 영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자아통합감, 죽음준비도, 우울, 내세관, 영적 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Death Anxiety and Its Related Variables

(N=494)

| Variable                         | Min  | Max  | M±SD      |
|----------------------------------|------|------|-----------|
| Death anxiety                    | 29.0 | 77.0 | 52.1±7.1  |
| Death anxiety of self            | 1.0  | 4.0  | 2.4±0.5   |
| Dying anxiety of self            | 1.0  | 4.0  | 2.6±0.5   |
| Death anxiety of others          | 1.2  | 4.0  | 2.7±0.5   |
| Dying anxiety of others          | 1.4  | 3.8  | 2.7±0.4   |
| Psychological factor             |      |      |           |
| Self-integrity                   | 22.0 | 64.0 | 41.3±6.8  |
| Acceptance of past and present   | 1.0  | 4.0  | 2.5±0.6   |
| Attitude to life                 | 1.4  | 4.0  | 2.8±0.5   |
| Readiness to death               | 10.0 | 36.0 | 25.4±4.4  |
| Psychologic                      | 1.0  | 4.0  | 2.8±0.6   |
| Material                         | 1.0  | 4.0  | 2.8±0.7   |
| Afterlife                        | 1.0  | 4.0  | 2.9±0.7   |
| Depression                       | 15.0 | 30.0 | 21.5±3.7  |
| Spiritual factor                 |      |      |           |
| Belief in life after death       | 4.0  | 16.0 | 11.6±3.2  |
| Spiritual well-being             | 24.0 | 80.0 | 54.0±11.3 |
| Religious spiritual well-being   | 10.0 | 40.0 | 26.0±7.9  |
| 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 | 13.0 | 40.0 | 28.0±5.0  |

념을 투입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하였다(Table 5).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통합감, 심리적 죽음준비도, 우울 및 물리적 죽음준비도가 죽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며, 영적 요인으로는 내세관이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은 전체적으로 21.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3.** Differences of Death Anxie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94)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M±SD     | t or F (p)           |
|---|--------------------------------|----------|----------------------|
| Gender                                  | Male                           | 51.0±7.1 | -2.11 (.035)         |
|   | Female                         | 52.5±7.1 |                      |
| Education level <sup>†</sup>            | None <sup>a</sup>              | 52.7±7.3 | 2.55 (.039)<br>a>b   |
|   | Elementary school <sup>a</sup> | 52.3±6.9 |                      |
|   | Middle school <sup>a</sup>     | 52.7±6.7 |                      |
|   | High school                    | 50.9±7.2 |                      |
|   | Above university <sup>b</sup>  | 48.6±7.9 |                      |
| Marital status <sup>†</sup>             | Unmarried <sup>a</sup>         | 53.6±9.3 | 2.67 (.047)<br>a>b   |
|   | Married                        | 51.5±6.9 |                      |
|   | Bereavement                    | 52.9±7.1 |                      |
|   | Others <sup>b</sup>            | 48.9±7.3 |                      |
| Religion <sup>†</sup>                   | Protestant <sup>a</sup>        | 50.3±8.1 | 4.01 (.003)<br>a<b   |
|   | Catholicism <sup>b</sup>       | 53.7±6.2 |                      |
|   | Buddhism <sup>b</sup>          | 52.5±6.8 |                      |
|   | Others                         | 51.0±9.4 |                      |
|   | None <sup>b</sup>              | 52.9±6.0 |                      |
| Influence of religious                  | Poor                           | 52.9±7.1 | 2.58 (.077)          |
|   | Moderate                       | 52.9±6.2 |                      |
|   | Good                           | 51.2±7.6 |                      |
| Live together                           | Only couple                    | 51.4±6.8 | 0.52 (.722)          |
|   | With married offspring         | 52.5±7.4 |                      |
|   | With unmarried offspring       | 51.9±6.4 |                      |
|   | Alone                          | 52.4±7.9 |                      |
|   | Others                         | 51.8±5.0 |                      |
| Perceived financial status <sup>†</sup> | Unsatisfaction <sup>a</sup>    | 52.8±6.6 | 4.07 (.018)<br>a>b   |
|   | Moderate <sup>a</sup>          | 52.5±6.9 |                      |
|   | Satisfaction <sup>b</sup>      | 50.6±7.6 |                      |
| Perceived health condition <sup>†</sup> | Bad <sup>a</sup>               | 53.9±6.7 | 10.23 (<.001)<br>a>b |
|   | Moderate <sup>b</sup>          | 51.2±6.9 |                      |
|   | Good <sup>b</sup>              | 50.8±7.3 |                      |
| Social activity                         | Poor                           | 52.7±6.5 | 2.49 (.084)          |
|   | Moderate                       | 52.4±6.4 |                      |
|   | Good                           | 51.1±8.0 |                      |

<sup>†</sup> Post-Hoc (Duncan's test).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Death Anxiety and the Related Variables

| Variable      | Psychological factors |                    |             | Spiritual factors          |                      |
|---------------|-----------------------|--------------------|-------------|----------------------------|----------------------|
|               | Self-integrity        | Readiness to death | Depression  | Belief in life after death | Spiritual well-being |
|               | r (p)                 | r (p)              | r (p)       | r (p)                      | r (p)                |
| Death anxiety | -.37 (<.001)          | -.20 (<.001)       | .36 (<.001) | -.19 (<.001)               | -.24 (<.001)         |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Death Anxiety

| Predictors                                 | B     | SE   | t     | p     |
|--|-------|------|-------|-------|
| (Constant)                                 | 56.99 | 4.41 | 12.94 | <.001 |
| Self-integrity                             | -0.19 | 0.06 | -3.46 | .001  |
| Psychologic readiness to death             | -2.16 | 0.53 | -4.11 | <.001 |
| Depression                                 | 0.36  | 0.10 | 3.56  | <.001 |
| Material readiness to death                | 1.55  | 0.45 | 3.43  | .001  |
| Belief in life after death                 | -0.80 | 0.28 | -2.89 | .004  |
| Adj. R <sup>2</sup> =.216, F=26.96, p<.001 |       |      |       |       |

## 논 의

사람은 누구나 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고 죽음과 직면하게 된다. 노년기에 남은 자신의 미래와 맞이할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냐는 현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통합감, 죽음준비도 그리고 우울을 살펴보았다. Hong (2000)은 자아통합감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룬 노인의 심리적 안녕상태를 반영하는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였고, Erikson (1997)은 노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은 자아통합으로 이를 이루게 되면 자신의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재생활에 만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 간에 조화된 견해를 가져서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도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통합감은 죽음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죽음불안을 13.8%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Kwon (2008), Hong (2009), Hong (2000) 및 Lee (2005)의 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Hong (2000)은 자아통합을 이룬 사람은 죽음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수용하므로 죽음불안이 낮고, 절망감에 이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Lee (2005)는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죽음불안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여기서 생활만족도는 자신과 삶의 유한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아통합감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노인은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죽음불안 수준은 낮게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Kwon (2008)의 연구에서도 자아통합감이 높을 때 죽음불안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Hong (2009)은 자아통합감의 발달이 죽음불안

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면서, 자아통합감이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사랑이고 남은 부모에 대한 감사이며 모든 삶의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의 존엄성과 가치를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자아통합감을 달성한 사람은 죽음을 수용하지만 자아통합감의 결여는 죽음에의 공포와 절망으로 나타난다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자아통합감은 노인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노인에게 자아통합감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Hong (2000)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 못했던 길과 내가 갔던 길을 모두 인정하고 내 삶이 인간의 긴 역사의 일부분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Hong (2009)은 특별히 죽음을 가장 가까이 앞두고 있는 노인들에게 정신적인 빛의 청산이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는데,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정서적인 상처들을 용서라는 심리적 자기결단이나 선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죽음준비도는 죽음을 수용하는 심리적 준비와 현실적 대처 같은 물리적 준비 정도를 말하며, 심리적 물리적 사후 준비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죽음준비도는 평균 25.36점으로 나타났다. 죽음불안과의 관계에서 죽음준비도와 죽음불안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회귀분석 결과 심리적 준비도는 2.9%를 물리적 준비도는 1.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죽음준비인식이 낮을수록 죽음불안이 높다고 보고한 Lee (2005), 죽음준비도가 '하'인 집단이 죽음불안태도가 높게 나타난 Ryu (2004), 죽음불안과 죽음준비도의 회귀분석 결과 심리적 준비가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Park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죽음과

관련된 준비는 실제로 죽음이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남아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부담을 갖지 않도록 준비하는 하는 일이다. 즉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좀 더 지혜롭게 비탄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Ryu (2004)가 논한 바와 같이 죽음준비란 죽음의 순간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점검이며, 의미 있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죽음준비교육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Jeon (2000)의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노인이 45%, 준비를 하고 있는 노인이 32%로 나타나 죽음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함을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죽음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좋은 중재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Kwon (2008)의 연구에서도 유서쓰기, 매장과 화장 관련 주제들, 영정사진 준비하기 등 죽음을 준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적절한 방법으로 기술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우울수준은 21.49점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 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죽음불안과 우울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나 우울이 심할수록 죽음불안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울과 죽음불안과의 관계를 연구한 Miller (1992), Young (1997), Jeon (2000) 및 Kwon (2008)의 보고와 일관된다. Miller (1992)는 노인의 발달위기에서 자아통합감에 실패한 절망감의 전조로 나타나는 노인의 대표적인 정서가 우울이라고 하였고, Young (1997)은 노인에 대한 심리 정서적 문제의 연구에서 우울은 가장 빈번히 측정되는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라고 언급하였다. Jeon (2000)은 노인의 죽음불안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과 고독감 등의 심리적 요인이며 특히 증가된 우울은 높은 죽음불안을 야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속된 우울은 자기 파괴적인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매우 부정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Kwon (2008)의 연구 역시 죽음불안을 증가시키는 유의한 변수로 우울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노인의 우울이 자살과 같은 형태의 죽음으로 이어지거나 죽음 직전의 공포를 경험하는 사례들을 통해 우울과 죽음불안과의 상관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생각해 볼 때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일은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중재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영적 요인은 내세관과 영적 안녕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후 내세에 대한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유한성을 부정하는 가치관이기도 하지만 현세의 고통의 의미를 내세에서 보상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죽음 뒤에도 생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영혼불멸의 내세에 대한 믿음은 죽음의 공포나 불안을 다루는 주요한 대처기제로써 작용한다. 또한 Kim (2003)은 종교는 임박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일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생활의 유의미성과 중요성을 계속 느끼고 발전하도록 도우며, 노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각종의 상실감을 받아들이도록 돕고,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잠재해 있는 보상적인 가치들을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 내세관은 11.55점이었으며 영적 안녕은 평균 54.04점으로, 영역별로는 종교적 안녕보다 실존적 안녕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내세의 확신이 클수록 죽음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적 안녕도 죽음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내세관만이 죽음불안을 1.3%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선택되었다.

이는 이미 선행된 내세관이 죽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Kim (1993), Sim (2002) 및 Park (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최근 내세관 도구를 개발한 Ryu (2004)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Ryu (2004)는 내세에 대한 의식이 높을 때 뿐 아니라 낮을 때에도 죽음불안태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내세관에 대한 정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며, 종교적 신념이 자신의 영적 욕구보다는 현실의 안위를 위한 방편으로 종교를 갖는 성향들 때문이라고 논하였다. 또한 Park (2007)의 연구에서는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자연스런 현상이고 천국생활의 시작이라는 확실한 내세관을 가진 노인들이 죽음불안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노인들, 홀로 남은 가족에 대한 염려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한 염려가 많은 노인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노인들이 죽음에 대한 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세관은 죽음 뒤에 오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내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없다면 건전한 죽음에 직면할 수 없다는 Jung (1969)의 말처럼 죽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죽음에 대한 접근은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영적 안녕이 죽음불안과 부적 상관은 있으나 회귀분석 결과 영적 안녕은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 탈락되었다. 이것은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차이검정이나 단순 회귀를 통해 결과를 살펴보았던 Kim (2007)과 Park (2007)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영적 안녕이 자아통합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보다 크다고 보고한 Choi (2009)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 결과를 더욱 확실히 지지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죽음을 바라보는 노인들에게 죽음의 불안을 낮추고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 그리고 영적 요인을 통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 일, 종교적 차원에서 영적 안녕을 도모하는 일, 심리적 물리적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삶의 만족을 증가시켜 노인의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감을 달성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죽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 영적 안녕을 도모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노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노인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은 남은 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심리적 또는 영적 요인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요인을 조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재가 노인의 심리적 · 영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죽음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자아통합감과 죽음준비도를 향상시키고 우울에 대한 적절한 지지와 중재를 할 때 노인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임상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 및 의료종사자들이 죽음불안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심리적 · 영적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죽음불안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죽음불안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전략을 마련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 및 기타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을 확장할 것과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세부적인 집단 간 영향요인을 비교하는 요인관련수준의 연구와 셋째, 요인관련수준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적 틀을 마련하여 상황관련수준의 죽음불안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해 볼 것과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죽음준비교육들을 재검토해 보고 심리적 · 영적 요인을 강화한 상황생성수준의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Choi, G. J. (2009). *The effect of the spiritual well-being of the aged on ego integrity and death anxie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Choi, J. K. (2005). *A study on the effects of elderly people's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ies and social support upon uneasiness about dea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Jeongju.
- Collett, L. J., & Lester, D. (1969). The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J Psychol*, 72, 179-181.
- Erikson, E. H. (1997). *The life cycle completed: A review*. New York: Norton.
- Hong, C. Y. (2000). *Reminiscence functions predictors in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ong, K. J. (2009). *The effect of social support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and the anxiety of dea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Jang, W. B. (2003). *The influence of religion on old men's anxiety about dea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Jeon, Y. G. (2000).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death anxiety in the old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 Jung, C. G. (1969).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Vol. 8; Vol. 9, 387-42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e, B. S. (1996).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5(2), 298-307.
- Kim, H. G. (2007).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anxiety toward death of the elderly in-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Kim, J. E. (2003). *An influence of home visiting hospice on the basis of social support on the old people's attitude toward dea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 Kim, K. J. (1993). *A study of death anxiety according to religious participation for aging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Y. L. (2003). *A study on religious life and attitude to death for older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 Kwon, O. G. (2008). A Survey on the determinants of death anxiety in nursing-home residents. *J Welfare Aged*, 41, 27-50.
- Lee, D. H. (2005).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degree of anxiety about death in the senior population -focusing on those using senior welfare cen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 Lee, K. H. (2008). *A study on death of the aged -focusing on analysis of the attitudes toward death and the demand for death preparatory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ul.
- Lee, Y. J.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consciousness regarding preparation for death and anxiety of death -focused on those using the welfare center for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Miler, J. F. (1992). *Coping with chronic illness, overcoming powerlessness* (3rd ed). Philadelphia, PA: F. A. Davis Company.
- Moon, N. S. (2009). *The influence of death preparation and forgiveness of the elderly on successful aging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death anxie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gju University, Chongju.
- Oh, M. N., & Choi, W. S. (2003). A study on self-esteem, death anxiety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home and facilities. *J Korean Home Econ Assoc*, 43(3), 105-118.
- Oh, S. C. (2008). *Study of senior housing residents' fear of dea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 Psychol Theol*, 11 (4), 330-340.
- Park, J. Y. (2007).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and perceived attitude toward death on death anxiety for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eoul.
- Park, K. J. (2009). *Elderly preparation for death and anxiety of dea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Ryu, H. O. (2004). *Death anxiety among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focused on afterlife and the readiness to dea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Shin, M. C. (2002). *A study on participation in religion and acceptance attitude toward death of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eongju University, Jeongju.
- Sim, M. K. (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death anxiety and social support in the elderly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Statistics Korea (2005). *Annual Report: Population projections*. Retrieved August 9, 2008, from <http://www.kosis.kr>.
- Young, Q. P. (1997). *Health promotion for older adults: Evaluation of a 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ontana, USA.